

보도설명자료

(’18. 2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유턴기업 늘리겠다면서 예산은 되레 반토막
(’18.2.14. 서울경제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유턴기업 지원 예산이 ‘16년 7억 2,900만원에서 ‘17년, ‘18년 3억원으로 줄어들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유턴기업 실태조사,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위한 예산이 ‘17년부터 3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,
 - 현재 직접적으로 유턴기업이 지원받는 법인세·관세 감면, 입지·설비보조금, 고용보조금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음

* (법인세) 최대 7년간 감면, (관세) 최대 4억원 감면, (입지·설비보조금) 투자액의 8~40%, 최대 60억원, (고용보조금) 1년간 720만원/인, 최대 100명

- 정부는 앞으로도 유턴 관련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,
 - 또한,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턴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, 보완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송현주 과장 (044-203-4090)
해외투자과 윤제민 사무관 (044-203-4093)